

## 다언어교수법과 독일교육<sup>1)</sup>

이광숙\*

### 1. 논문의 목적

1990년 이후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또 인터넷, 이메일 등 정보매체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공용어로서 영어의 위상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어 세계 각국 학교에서는 영어의 조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도시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의 이러한 위상은 제2 외국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추세에 맞추어 90년대 이래로 유럽 공동체(Europäische Union)에서는 유럽 의회 (Europarat)를 중심으로 언어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언어 정책은 학생 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모국어이외에 최소한 두 가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Gemeinsamer europäischer Rahmen 2001, 17 f.). 주목할 점은 두 가지 외국어로는 많이 사용되는 언어뿐 아니라 이웃 나라의 언어나 소수 민족의 언어도 추천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정책은 학생뿐 아니라 대중도 언어 내지 외국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국인들의 의사소통과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점은 모국어 학습이 시작된 후에 대부분이 영어를 제1 외국어로 배우게 되고 이 후에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이다. 즉 제2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이전에 이미 모국어와 영어에 관한 언어 지식과 학습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배경을 고려하여 언어학자, 교육자, 정책 전문가들이 제2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 방법이 바로 다언어교수법 (Mehrsprachendidaktik)<sup>2)</sup>이다.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으로 이루어졌음.

2) 다언어교수법에 관해서는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2001)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저서는 영어와 기타 언어의 분포와 이용관계를 설명하고 다른 언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언어교수법을 제시하고 이를 각국에 적극 추천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일교육과 교수

이 논문에서는 90년대 이래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다언어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의 독어교육에서 이 교수법의 응용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한다: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시는 다음 과제로 정하기로 한다.

## 2. 다언어교수법

### 2.1. 목표

다언어교수법의 목표는 배우는 이로 하여금 모국어를 포함하여 여러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에 여러 언어의 의미는 많은 언어 (“Vielsprachigkeit”)를 나열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배웠던 언어의 (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지식, 경험, 전략을 이용하여 새로 배우는 언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배우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언어 (“Mehrsprachigkei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2001, 17).

이 교수법에 따르면 제2 외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1 외국어의 목표와 같다. 즉 제2 외국어 또 기타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 문화적인 이해를 넓혀서 선입견, 편견 등을 없애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과정을 알고 제2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교수법을 알기위해서 유럽의 언어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1990년도에 동유럽이 붕괴됨에 따라 러시아어가 쇠퇴하고 이 지역에서 영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자 영어는 국제 공통어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4억 인구가 영어를 모국어로, 3억이 제2 언어 (Zweitsprache)<sup>3)</sup>로 사용하고 그리고 10억 이상이 영어를 외국어 (Fremdsprache)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Hufeisen, B./G. Neuner 2001, 10). 학교에서도 영어는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고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언어가 되었다.

1999년 유럽 공동체 설문(Hufeisen, B./G. Neuner 2001, 10)에 의하면 공동체 주민

3) 독일어에서는 제2 언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여 쓰인다. 제2 언어는 한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모국어처럼 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동구권 이주자들은 모국어이외에 독일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외국어인 경우 주로 수업등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의 44%가 한 가지 외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하며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동체 주민의 6-7%만이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벨기에, 덴마크등 조그만 나라에서 외국어를 많이 한다고 한다 .

유럽공동체가 유러화 (Euro)를 도입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체간의 이해와 교류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언어의 지식이 필수적인 것이다. 즉 각국 주민들끼리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언어 정책적인 면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 다언어 교수법이 발달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2.2. 전제조건

다언어교수법은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이제까지 배웠던 언어지식과 학습방법 및 전략 등 학습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교수방법이다. 이미 습득한 언어 배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학습동기와 관심이 높아져서 외국어 교육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이 교수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2 외국어를 배울 때에 이전에 배웠던 모국어와 제1 외국어의 중요한 지식과 학습방법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학생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다른 학생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혼자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 및 전략을 터득하게 된다. 이 자립적인 학습 방법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언어나 다른 것을 배울 때에 도움이 되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교 졸업 후에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터전과 방법을 익히게 해준다. 다언어교수법은 결과적으로 학생뿐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응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있다.

이 교수법의 전제조건으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과 학교기관, 교수법 또 구체적인 수업에서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독일어의 사회적인 언어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 (Hufeisen, B/G. Neuner 2001, 10). 유럽에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9200만으로 러시아어 (1억2천)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독일내에서 대략 750만이 독일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고 세계적으로 1800-2000만이 독일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다. 이들의 절반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독일어를 배우는 이의 2/3는 중부와 동부 유럽에 사는 셈이다. 이 지역의 학교에서는 10년 전부터 독일어가 영어 다음

으로 중요한 외국어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독일내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의 종류는 다양하며 외국어 교육의 실시 과정도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초등교육<sup>4)</sup> 4년, 즉 그룬트슐레 (Grundschule)<sup>5)</sup>를 마치고 난 후 5학년부터 (제1)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가 제1 외국어로 제공된다. 대부분 주에서 영어를 제1 외국어로 선택하나 프랑스와 경계 지역인 잘란트 (Saarland)주에서는 프랑스어를 제1 외국어로, 또 고전 언어 김나지움 (Altsprachliches Gymnasium)에서는 라틴어를 제1 외국어로 제공한다. 일부 연방주 (예: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주 전역)에서는 외국어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그룬트슐레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레알슐레 (Realschule)와 김나지움 (Gymnasium) 학생들은 7학년에서 제2 외국어를 배우게 된다<sup>6)</sup>. 하우프트슐레 (Hauptschule)에서는 영어 교육만 실시하고 제2 외국어 교육은 하지 않는다. 현존 언어나 고대 언어를 강조하는 김나지움 (neusprachliches bzw. altsprachliches Gymnasium)에서 제3 외국어는 보충 수업 또는 집중 코스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9학년부터 가르쳐지나 의무적이지는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ausch/Christ/Krumm의 Handbuch Fremdsprachenunterricht 1995, 110 f.를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교육에서 제1 외국어와 제2 외국어의 배당 시간이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어의 학습목표는 의사소통신장, 문화이해등 동일하다. 따라서 제2 외국어에서는 학습소재를 빨리 다루어야 하는 관계로 학습과정이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제2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외국어 수업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다. 제2 외국

4) 독일 학교 교육은 3단계 (초등, 중등, 고등)로 구분하며 초등교육 (Primarstufe)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중등교육 (Sekundarstufe) I은 5학년에서 10학년까지, 중등교육 (Sekundarstufe) II는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이며, 대학교육은 고등교육 (Tertiärstufe)에 속한다.

5) 독일 초등 교육은 그룬트슐레에서 이루어 지고 교육기간이 4년이며 베를린은 예외적으로 6년이다. 중등교육은 하우프트슐레 (5년), 레알슐레 (6년), 김나지움 (9년)에서 실시한다.

6) 독일의 학교에서는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의 구분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독일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는 학교마다 다르며 전국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종류는 총 15 이상이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스페인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어, 스웨덴어, 러시아어, 폴투갈어, 폴란드어, 네델란드어, 그리스어, 덴마크어, 일본어, 아랍어, 중국어 등이다. 한국어인 경우 한인 교포가 많은 지역에 따라서 스터디 그룹 (Arbeitsgruppe)이 가능하다. 독일에서 현존하지 않은 외국어로 라틴어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등단계 I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중에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어를 배우는 학생들 연령은 제1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보다 높고 이들은 이미 개인 생활과 교내와 교외 생활에 대한 경험과 또 외부세계, 문화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와 같은 지적 능력과 경험은 학생으로 하여금 의식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다언어교수법에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있는 언어지식, 학습 경험, 학습 전략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새로운 학습소재, 즉 어휘, 문법, 발음 등에 적극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국어에서 사용되는 국제용어 (radio, taxi등), 선전, 스포츠, 유행등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 (digital, pop song등)도 충분히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용어와 표현에는 영어의 표현이 많고 또한 제1 외국어가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수업에서의 학습 경험, 학습 전략이 제2 외국어에 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이후의 독일어 (Deutsch nach Englisch)”라는 표현내지 명칭이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교수법은 특히 초보 수업에서 학생에게 친숙한 어휘와 테마 내용이 제공되어 새로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이해능력이 특히 읽기, 듣기 (텍스트)와 연관된 연습을 통해서 궁극적인 표현능력의 발전으로 이어져 말하기, 쓰기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된다.

다언어교수법에서는 학습형태, 학습유형, 학습전략, 교수방법등이 논의된다. 학습형태는 각국의 문화와 연관된 학습 전통을 말하며 학습유형은 개개인이 학습하는 양식으로 인지형, 모방형, 행동형, 토론형으로 구분된다. 학습전략은 직접적인 (인지) 전략, 간접적인 (비인지적인 전략), 언어사용전략으로 나뉘어진다. 교수방법으로는 문법 번역 방법, 시청각방법, 의사소통방법, 상호문화방법등이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세부적인 것은 지면 관계상 이 논문에서 생략하기로 한다<sup>7)</sup>. 다언어교수법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은 자신이 제1 외국어 수업에서 어떤 교수방법으로 배웠는가를 확인하고 본인이 어떤 학습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실히 알며 어떤 학습 형태가 본인에게 효과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제까지 배운 학습전략에 대해 알고 이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과 그 외의 어떤 다른 전략이 학습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방법으로 결과에 도달했는가를 스스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다른 학생의 학습과정을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7) 다언어교수법의 학습유형, 학습형태, 학습전략, 교수법에 관해서는 Hufeisen B./G. Neuner 2001 (16-20)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언급된 사항들이 다언어교수법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 교수법을 실행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모국어 교육과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 교육이 일반적으로 연계가 안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습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외국어교육을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되므로 경제적이지 못하다. 또한 제1 외국어와 제2 외국어의 교수방법이 다른 경우 학생들이 혼란해 하거나 또한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행정상의 편의로 또는 해당 언어를 담당하는 교사가 없거나 또 배우는 학생의 수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제2 외국어를 선택할 수 없는 점은 학습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 외국어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의 자질과 학생들의 수준 문제이다. 이들은 제1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다언어교수법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3. 한국에서의 전제조건

한국에서의 언어교육 상황은 국제 추세에 부합하여 모국어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이후에 영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3년에 시작된다. 영어 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6년동안 지속되므로 총 10년이 시행되는 셈이다. 독일어를 포함한 제2 외국어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4년동안 주당 2시간,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6년동안 주당 평균 4시간 실시된다. 반면에 제2 외국어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1-2년간 주당 2시간씩 시행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독일어를 배우기 이전에 모국어와 영어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게 된다.

독일어 수업의 학습목표인 의사소통능력과 문화 이해 증진은 영어 수업의 학습목표와 동일하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외우기 위주의 학습형태를 취하며, 학습유형으로는 인지적인 학습유형, 또한 인지적인 학습 전략과 문법 번역교수방법에 익숙해 있다.

한국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이미 습득된 전통적인 학습형태, 학습유형, 학습전략과 교수방법중에서 인지적인 방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야 하나 이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학습형태, 전략,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교수법에서 권하는 학생들이 학습과정을 설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학생의 설명도 듣고 서로 토의, 논의하는 것을 훈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한국의 독어교육에서도 다언어교수법의 응용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닌다. 고등학교에서는 독일어 수업의 실제 목표가 무시되고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암기위주, 문법, 번역방법에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어 학습자가 지식을 응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과정의 설명, 토론의 훈련도 되어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제1 외국어의 능력도 문제시되며 다언어교수법에 확신이 서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 3. 독일교육에서 다언어교수법의 응용가능성

다언어교수법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및 동유럽을 중심으로 90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또한 수업과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교재 Deutsch nach Englisch (2003)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독일독문학계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교수법은 우리나라의 제 2외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또 실제 수업에 응용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독일어 교육에서는 언어유형과 친밀도 면에서 한국어보다는 영어의 지식과 학습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독일어 텍스트를 접할 때에 다음과 같은 학습 과정을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우선 학생들이 텍스트를 다루기 전에 의식적으로 영어의 지식과 경험을 상기시키게 한다. 다음 독일어 텍스트에서 영어와 비슷한 어휘 형태를 가려내도록 한다. 두 어휘의 형태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아주 유사한 것과 그리고 비슷한 것을 구분한다.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형태는 의미면에서도 유사한 점을 확인하고 (Film/film, Guitar/guitar, Ball/ball, Eis/eis, Arm/arm, Slogan/slogan 등) 또한 비슷한 경우에는 영어에서 독일어 형태를 유추하는 훈련을 길러야 한다: Mathe/maths, Musik/music, Literatur/literature, singen/sing 등.

이 외에도 어휘, 문법, 발음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국제공용어를 교재나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에서 국제공용어는 일반적으로 영어와 독일어에서 같이 사용된다: system, error, message, cursor, e-mail 등.

스포츠, 유행, 여행, 팝문화에서 사용되는 영어와 독일어의 공통 어휘를 이용한다: sport, mode, collection, check in, rock band 등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의 영어 기본어휘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독일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어휘를 참고한다: house, hand (영어)/ Haus, Hand (독어) 등.

영어와 독일어가 형태와 발음상 비슷하나 의미가 다른 falsche Freunde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한다: Gift (壽: 독어)/gift (선물: 영어)등.

문법 분야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독일어 구조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선한국어에는 없는 구조, 예를 들어 관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영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교사는 문법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단순한 언어구조에 국한해서 영어와 독일어의 공통된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동사의 위치, 형용사의 비교변화 등. 영어와의 비교를 간단한 구조에 국한시키는 것은 복잡한 언어구조에서는 두 언어의 비교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독일어 발음에는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학생들이 영어의 [r] 발음을 독일어에 자주 전이시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Vater, Mutter 등의 말음 발음을 한국 학생들이 자주 영어식으로 발음한다. 이러한 경우 교사들은 이 전이가 어느 분야에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다언어교수법에서는 언어간의 공통점 뿐 아니라 차이점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사 자신도 독일어와 영어의 발음상의 차이를 조사하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언급한 독일어와 영어의 [r] 발음의 차이, 독일어의 말음 경화: Hand에서 [t] 발음, Some에서 s음의 유성화 [z] 현상 등 .

이들 분야를 세세히 조사한 후에 수업에 구체적으로 또 수월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어휘 비교표 (한국어, 영어, 독일어)와 기초 문법 사항 비교 도표 등을 작성한다.

다언어교수법은 이해 (Verstehen)기능을 강조하고 또 이 기능을 전제로 하여 생산 (Produzieren)기능이 이루어진다. 이해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해전략 (전반적 이해, 선별적 이해, 세부적 이해)을 소개한다. 이 전략을 근거로 읽기와 듣기 연습과 텍스트를 작업하는 기술 (Textbearbeitungstechnik)과정과 단계를 논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외국어를 접하게 되면 우선 단어나 문장을 일일이 번역하고 난 후에 이해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이해를 먼저 하다 보면 텍스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 중요한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각 텍스트 종류와 학습 상황에 따라 이해 전략과 텍스트 작업기술이 달라진다. 따라



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텍스트 선정, 텍스트에 이용될 어휘와 문법의 선택, 텍스트 이해 전략과 텍스트 작업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학생들이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한다. 이 교수법에서는 학습시 개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유추하고 전이했는지를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 때에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전, 문법책같은 보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떻게 텍스트를 이해했는지의 과정 (예를 들어 영어와 독어의 아는 어휘를 비교한 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과 토론을 통해 본인과 다른 학생의 학습 과정을 알게 되며 이러한 과정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학습의 능동성과 자율성이 수동적인 학습 전통으로 인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학교교육에서도 학습 자율성이 강조되며 학교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언어의 비교와 모국어와 외국어의 관계를 통해 언어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고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터득하여 평생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 4. 제안점

한국에서 학생들 뿐아니라 일반 대중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 교육의 열기는 분명 국가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교육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과도한 투자에 의해 습득된 영어의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제2 외국어 (특히 독일어와 불어)교육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 어려운시기에 제2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여 과감하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된 다언어교수법은 실제 언어교육상황을 중시하고 있다: 제1 외국어와 제2 외국어의 학습목표는 동일하지만 이들 외국어에 소요되는 학습시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경제성을 이용하여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언어지식, 학습 경험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자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배우는 과정에서 적극성과 능동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학습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국어 내지 영어 교육과 제2 외국어 교육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어와 영어에 투자되는 학습량을 감안해 볼 때에 이들 언어지식이 제2 외국어에 이용되면 교육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제2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 과감히 주장해 본다.

다언어교수법 분야에서 최근 이공계 계통의 한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독일어 단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주소정 2002)가 있는데 이는 영어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어 단어의 유추와 전이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대학생들은 독일어에 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고등학교에서 독일어 선택을 하지 않았음) 영어의 지식을 근거로 독일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낸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배운 지식을 “재활용”하는 것이 독일어를 배우는 데에 동기유발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기성세대들이 “독일어 배우는데 무슨 영어까지”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정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다 주며 이 교수법이 제2 외국어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학부 학생<sup>8)</sup>도 독일어 학습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교수법을 한국의 독일어 수업에 이용하는 데에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학생들이 지닌 인지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수동적인 학습습관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고 이를 반복 훈련시켜서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이 적극성과 능동성을 시급히 터득해야 할 시기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이 학습 습관과 환경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이러한 훈련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언어교수법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동성을 키우고,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율성을 터득하게 하여 토론과 담화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한국 학생 역시 학교 생활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학생들에게 수업과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우선 모국어로 구사하게끔 자극을 주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수업의 활

8) 2003년 겨울학기의 학부 수업에서 다언어교수법을 다루고 영어를 독일어 학습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음, 어휘, 문법면에서의 응용가능성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하였으며 고등학교 독일어 수업에서 영어와의 비교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언어교수법은 실지로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외국어 교육의 초급단계에 이용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어휘분야에서 이 이론을 이용하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문법분야에서는 개념도입 등에서 이미 배운 영어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이 독일어 구조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게 된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심도있게 그리고 중급단계에서도 이 교수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서는 교양과정과 전공과정 1학년과 2학년에 이 교수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교수법을 한국의 제2 외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수동적인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교사들에게도 해당된다. 초기에는 학생이나 교사들의 거부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제1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여 이를 제2 외국어에 이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휘, 문법, 발음면에서 영어와 독일어의 비교, 나아가서는 한국어와의 비교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교수법을 이용한 수업보조자료, 교재자료, 텍스트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가 수업에서 이에 관한 지식을 수월히 이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언어교수법은 평생교육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영어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 교수법을 이용하여 대중에게도 또 하나의 다른 외국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대중에게 외국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화 시대에 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Bausch, K.-R./H. Christ/H.-J. Krumm: Handbuch Fremdsprachenunterricht, Tübingen und Basel 1995.
- Berger, M. C./ A.M. Curci/A. Gasparro: Deutsch nach Englisch: good + gut = ottimo, Mailand 2003.
- Goethe Institut Inter Nationes, u.a. (Hrsg.)(2001):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lernen, lehren, beurteilen. Berlin u. a.: Langenscheidt.
- Hufeisen, B. (1999): Deutsch als zweite Fremdsprache. In: Fremdsprache Deutsch 1, 4-6.
- Hufeisen, B./ Neuner, G (2001): Projekt 1.1.2.: Mehr als eine Fremdsprache effizient lernen: Tertiärsprachenlehren und -lernen in Europa, Beispiel: Deutsch nach Englisch, Workshop, Bericht Nr. 11/2000, Graz (European Center for Modern Languages).
- Joo, Sojung (2002): Die Wortschatzarbeit beim Tertiärsprachenunterricht, Beispiel: Unterricht Deutsch als Fremdsprache nach Englisch in Korea, Kassel, 28 S.  
(Maschinenschriftliche Hausarbeit).
- Lutjeharms, M. (1999): Tertiärsprache und Sprachbewusstheit. Was Lernende über den Einfluss der ersten Fremdsprache denken. In: Fremdsprache Deutsch 1, 7-11.
- Neuner, G. (1996): Deutsch als zweite Fremdsprache nach Englisch. Überlegungen zur Didaktik und Methodik und zur Lehrmaterialentwicklung für die "Drittssprache Deutsch". In: Deutsch als Fremdsprache 4, 211-217.
- Neuner, G. (1999): "Deutsch nach Englisch". Übungen und Aufgaben für den Anfangsunterricht. In: Fremdsprache Deutsch 1, 15-21.
- Rohs, K. (2003): Übungen im Unterricht Deutsch nach Englisch in Korea, In: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orea 12, 101-112.

<Abstract>

## Mehrsprachendidaktik in Korea

KWANG-SOOK LIE\*

Die Mehrsprachendidaktik kann in Korea teilweise angewandt werden, wozu einige Voraussetzungen notwendig sind.

Die bei den Lernenden vorhandenen englischen Kenntnisse sollen bei der Didaktisierung der Grammatik und des Wortschatzes gezielt und systematisch berücksichtigt werden.

Lehrer sollen rigoros auf Frontalunterricht verzichten und sich die Verstehensstrategien zu eigen machen. Weiterhin sollen sie sich an Besprechung und Diskurs gewöhnen und somit die Besprechnugstechnik anlernen. Sie sollten ihre englischen Kenntnisse auffrischen und auch selbst in der Lage sein, sie bewusst anzuwenden.

Für Lehrer sollte ein geeignetes Lehr- oder Zusatzmaterial erstellt werden, das Informationen über Englisch und Koreanisch anbietet, damit die Lehrer sie leicht zur Hand greifen können. Handreichungen oder Lehrerhandbücher sollen mit konkreten Vergleichsbeispielen von Deutsch und Englisch in der Lexik, Morpho-Syntax, Aussprache und Orthographie bereitet werden, was zum Unterrichtszweck systematisch konzipiert sein soll, Man kann Übungsformen zur Bewusstmachung von sprachlichen und kulturellen Unterschieden sowie Gemeinsamkeiten anbieten.

Für Schüler sollten Hemmungen und Zurückhaltungen abgebaut werden. Man soll sie dazu veranlassen, auf bereits vorhandene sprachliche Kenntnisse bewusst zurückzugreifen. Der Aufbau einer solchen Aktivität könnte bei der Wortschatzarbeit beginnen. Sie sollten mit der Übersetzung aufhören und versuchen, Verstehensstrategien einzuüben. Lernende sollen aufgrund der Verstehensstrategien ihre Fertigkeiten zur Äußerung entfalten. Sie sollten sich dabei sowohl mit dem Lernstoff der deutschen Sprache, Landeskunde als auch mit dem Lernprozess intensiv auseinandersetzen. Koreanische Lernende sind in dem Alter intellektuell genug, so dass sie über den Lernprozess diskutieren können.

Für die Aktivierung sollten Lernstoffe so aufbereitet und präsentiert werden, dass sie

---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German Dept.

Lernenden zur selbständigen Arbeit führen. Aufgaben und Übungen müssen so gestaltet werden, dass Lernende gemeinsam in der Klasse das Ergebnis und den Prozess besprechen und überprüfen können. Für die selbständige Arbeit sind die Hilfsmittel zur Benutzung erlaubt. Eine solche Arbeit soll im weiteren das lebenslange Lernen nach dem Schulabschluss auch vorbereiten.

Forschungsaufgabe wären konkrete Untersuchungen zu Internationalismen und Anglizismen im Koreanischen und Arbeiten zur Auswahl der häufigsten englischen Wörter vom Grundwortschatz für Schulen.